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3 최승구
DEFENDER

14 바로우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델브리지
DEFENDER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7 김보섭
FORWARD

28 민경현
DEFEN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37 홍시후
DEFENDER

39 김명순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0 박진홍
MIDFIELDER

66 김세훈
MIDFIELDER

77 박승호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코패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코패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3	인천 : 김포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0	충남아산 : 인천	3	아산이수신
코패	05월 14일 (수) 19:00	3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0	안산 : 인천	2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2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3	천안 : 인천	3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인천 : 부천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인천 : 화성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김포 : 인천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인천 : 안산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부산 : 인천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19:00		인천 :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파아리아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BUCHEON PREVIEW

‘독보적’ 선두 인천, 부천 꺾고 안방 무패 행진 지킨다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지난달 리그 전승 행진을 달린 인천유나이티드는 6월 첫 홈경기에서 부천 FC 1995를 상대한다. 올 시즌 부천과 첫 맞대결에선 인천이 웃었다. 지난 4월 26일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박승호, 이명주, 무고사가 전반전에 연달아 득점포를 터트리며 약 3,500여 명의 팬 앞에서 올해 첫 '032'더비를 완승으로 장식했다.

인천은 새로 부임한 윤정환 감독을 필두로 기존 선수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단시간에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완벽에 가까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인천을 상대하는 상대 팀들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서는데 윤정환 감독은 매 경기 전략가의 면모를 뽐내며 공격적인 전술로 두터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윤정환 감독의 전술 모델이 잘 실현되는 데에는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측면 수비인 김영준이나 중앙 수비 김건희가 각각 중앙과 측면으로 움직여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를 챙겼다.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뒤 맞춰진 타이밍에 상대 뒷공간을 단숨에 공략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3라운드 성남전을 제외하고 무패를 달리고 있다. 특히 홈에선 코리아컵을 포함해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 5월 한 달에만 10골 무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완벽에 가깝다. 주포 무고사는 득점 선두를 굳건히 유지 중이고 선수단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높아진 모습을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다.

이명민 감독이 이끄는 부천은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달리다 몇 차례 주춤하며 리그 14경기 6승 4무 4패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위권 경쟁 팀들이 서 울이랜드, 전남 등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순위가 밀렸다. 하지만 코리아컵은 K리그1 김천상무를 꺾고 8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고 5월에 치른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로 무패 행진이다.

올 시즌 부천은 좋은 공격진에 비해 수비에선 아쉬운 모습이다. 올 시즌 클린시트 경기가 14경기 중 4경기에 불과하다. 이번 시즌 득점은 23골로 14개 팀 중 4위지만 실점은 21골로 다섯 번째로 많이 허용했다. 이명민 감독도 13라운드 충남아산전에서 수비진들의 분발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정도다.

하지만 공격진은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 2선 자원인 바사니와 갈레고의 개인 능력이 위협적이다. 갈레고는 5골 1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바사니도 4골을 터트렸다. 최전방의 몬타뇨도 신체 조건과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지난 맞대결에서 세트피스로 실점한 만큼 경계해야 한다.

인천과 부천의 리그 통산 전적은 지난 4월 치른 맞대결이 처음이라 1승에 불과하다. 인천은 홈에서 부천을 잡아낸 기억이 있다. 10년 전 홈에서 펼쳐진 부천과의 FA컵(현 코리아컵)에서 인천이 2-0으로 승리했다. 이번에도 부천을 잡아내고 그 당시보다 배로 늘어난 인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할지 기대해 보자.



vs HWASEONG PREVIEW

‘무결점’ 인천, 화성 꺾고 '선두' 견고히 한다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더위가 한층 깊어지는 6월 중순, 인천은 홈에서 프로 새내기 화성FC를 만난다. 지난 4월 6라운드 화성 원정에서 펼친 첫 맞대결에서 이동률의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1-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인천은 이번 시즌 원정 첫 승을 기록했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이후 치른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인천은 화성을 상대로 예상보다 고전하는 모습이였다. 지난 맞대결에서 전반 막판 득점으로 경기가 수월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화성의 외국인 선수들이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하지만 김건희와 박경섭을 앞세운 수비라인과 민성준의 높은 집중력으로 모두 막아내 무실점으로 지켜냈다.

맞대결 당시 인천은 윤정환 감독의 색깔이 완벽히 입혀진 상태가 아니었다. 특급 원어바로우도 첫 선발로 나서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중이었고 미드필드 조합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진입에도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천은 경기를 거듭하면서 전술 완성도를 높여갔고 공격 패턴도 더 다양해졌다.

화성은 오랫동안 K3리그 강호로 자리 잡은 팀이다. 올 시즌 앞두고 프로화를 선언했고 유소년 팀과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친 차두리를 감독으로 선임해 이번 시즌부터 K리그2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선수단 대부분 프로 무대에 처음 발을 들이기 때문에 시즌 시작 전부터 약체로 분류됐다.

화성은 만만히 당하지 않았다. 시즌 초반 행보는 놀라게 했다. 14경기에서 2승 3

무 9패로 13위에 올라있다. 분투에도 5월 성적은 1승 4패로 아쉬운 상황이다. 4월부터 시작된 4연패를 5월 첫 경기였던 천안전에서 끊어냈으나 다시 내리 4연패에 빠져 분위기가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최근 4연패는 모두 1골 차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화성은 전체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지켜낸 뒤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편을 위협하는 실리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15골로 경기당 1골은 만들어내는 공격력이나 아직까지 파이널서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최전방 공격수 도미닉과 2선 자원인 알돌, 리마, 루안의 개인 능력에 지난 원정 맞대결에서도 고전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선수로는 백승우가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K3리그 시즌부터 주축 공격 지원으로 활약했던 백승우는 프로 무대에서도 기술과 득점 능력을 뽐내며 이번 시즌 3골 1도움을 올려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달리고 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화성의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경기보다 선제골이 일찍 터지는 게 중요할 전망이다.

인천과 화성의 리그 통산 전적은 1승이 전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한 만큼 인천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처음인 선수들이 대부분이기에 인천이 경기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전인 경기 초반을 집요하게 노려볼 만하다.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인천이 팬들에게 홈 무패 행진을 계속 보여줄지 기대해 보자.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품격 넘치는 베테랑' 신진호
**인천 팬분들이
항상 자랑스럽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기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기록이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해당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선수가 있다. 바로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신진호다. 신진호는 올 시즌 중원은 물론이고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팀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UTD기자단은 돌아온 베테랑 신진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천 3년 차' 신진호, 인천은 포기하지 않는 팀

Q. 인천에서도 어느덧 3년을 보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었는가?

개인적으로도, 팀 자체로도 어려움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팬들과 더 즐기고 싶다. 좋은 분위기 덕분에 모두가 원하는 목표인 승격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처음 인천에 올 당시 화제가 됐다. 인천으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당시 인천은 AFC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달성하면서 여러 비전을 세웠던 상황이었다. 새 팀을 찾던 도중 접한 인천의 비전이 마음에 들었다. 이 팀으로 와서 인천에 도움도 되고, 즐거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Q. K리그, 해외를 포함해서 많은 팀을 경험했다.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인천만의 색깔,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고, 시즌 막바지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팀이다. 항상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았다.



부상을 뒤흔고 돌아온 신진호, 상승세에 공헌하다

Q. 윤정환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시즌에 돌입했다. 이전 프리시즌과 다른 점은 있었는가?

축구의 방향성이 확실히 달라졌다. 기존 인천 축구는 상대방에게 공격 주도권을 먼저 내주고,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전개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형태가 자주 나오고, 거기에 디테일도 가미했다. 전지훈련 때부터 전술, 위치를 이해하는 훈련이 계속 진행됐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과정도 거쳤다. 기존에는 안 해본 축구였지만, 훈련을 거듭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축구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는 모습이 가장 큰 변화이다.

Q. 선수 개인으로는 지난 2년간 부상에 시달렸는데, 올해는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컨디션은 괜찮은가?

상당히 좋아졌다. 내 몸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사실 2년 전 대구 원정에서 당한 발가락 부상이 생각보다 치명

적이었다. 복귀 후에도 통증이 남았고, 거기에 발목 부상까지 찾아왔다. 작년에도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팀이 힘든 상황이라 무리해서 복귀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몸 상태도 안 좋다 보니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부상을 거의 털어내고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경기를 전부 소화하지는 않지만, 후반전에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좋다.

Q. 전지훈련 당시부터 이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뛰고 있다. 감독의 지시 사항은 특별히 있었는가?

사실 어릴 때는 이 포지션에서 많이 경기를 소화했다. 위에서 압박하고, 공을 연결하고, 마무리 패스를 넣는 플레이를 그간 했었다. 이번 겨울에는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공을 받아 소유 및 패스를 선택하는 쪽에 집중했다. 감독님의 요구에 맞춰서 나도 준비를 계속했다.

Q. 팀의 연령대 변화도 있었다. 작년까지는 동갑내기 선수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홀로 최연장자가 됐다. 바뀐 상황 속에서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된다. 선수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고민일 때가 있다. 최대한 적절하게 소통해야 할 때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때를 구분하면서 교감하려고 노력 중이다.

Q. 젊은 선수들이 팀에 많아졌다. 이 선수는 나중에 대성하겠다는 생각이 든 선수도 있는가?

좋은 자원들이 정말 많다. 누구 하나를 꼽기 어렵지만, 박경선, 김건희, 박승호 선수가 어린 선수 중에는 가장 경기를 자주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시즌을 치르고 나면 이 선수들이 더욱 많이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Q. 팀이 리그에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상승세가 좋다. 성적 상승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떤 팀이든 이 정도 연승 기록은 쉽지 않다. 아무리 강팀이라 해도 힘든 기록인데, 팀 분위기가 워낙 좋은 덕분에 가능했다. 매 경기 상대방을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고, 선수들도 지시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경기장에서 원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Q. 개인으로 보면 풀타임은 아니어도 매 경기 꾸준히 출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약을 돌아보면 어떤가?

우선 내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팬들에게도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 한다.

Q. 최근 SNS를 보면 더 많은 관중이 오기를 독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팬분들 응원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가?

당연하다. 팬분들이 홈, 원정 모두 워낙 많이 와 주신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다. 그래도 항상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와 주신다면 선수들도 하루빨리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목표 관중 수는 있는가?

당연히 매 경기 만원 관중이 와서 전부 착 만 모습을 보고 싶다. 인천에 대한 애정으로 오는 분도 있고, 팀의 매력을 느낀 분들이 즐거움을 위해 오시기도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관중분이 오실지를 고민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톡 던진 '더 많이 와야 한다'는 말이 팬분들께 재미를 줬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 시즌은 매 경기 많은 관중분이 오셔서 같이 즐기는 분위기가 나오면 좋겠다.



대기조를 눈앞에 두고 다시 의지를 다진다

Q.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연맹 통산 300경기(리그 296경기)를 달성했다.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닌데,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조금 낮은 감도 있다. 더 빨리 기록할 수 있었는데 부상이 아쉬웠다. 그래도 300경기는 뜻깊고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경기가 끝난 뒤 집에 갔더니 아내가 축하해줘서 나도 까먹고 있다가 알게 됐는데,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부상으로 못 뛰어서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났다. 앞으로는 몇 경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만감이 교차했다.

Q. 아무래도 선수로는 노장의 반열에 들어갔다.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선수로 도전해 보고 싶다는 목표가 혹시 있는가?

지금 나이에서는 쉽게 설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매 경기, 매 경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년, 3년 뒤라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태, 나의 경기력에 집중하려고 한다. 내가 몸 상태가 안 되고 뛰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연전기부터는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축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Q. 인천 팬들에게 신진호라는 선수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는가?

인천에 온 뒤 내 목표와 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고 힘들었다. 처음 올 때는 몸 상태가 좋았지만,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니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몰아붙였는데, 부상이 겹쳐서 힘들었다. 그래도 올해는 전지훈련부터 잘 참여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노력했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복귀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노력도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경기장 위에서 보여드리고 싶다. 나를 어떤 선수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기보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대로 평가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천 선수로 뛰면서 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응원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인천유나이티드의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열성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경기장 외에도 클럽하우스에 훈련장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훈련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 모습이 활성화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인천 군 복무 리포트 인천 선수들의 병역 이야기

글 - 박범근 UTD 기자 (u0617@naver.com)

호국보훈의 달 6월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시기다.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실천해 왔다. 군복을 입고 피치 위를 누빈 선수도 있고, 국위선양에 힘을 보탠 이도 있다. 이들의 병역 이행 과정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천 선수들은 어떻게 병역의무를 해결해 왔을까. 그들의 각기 다른 여정을 따라가 본다.

경험 가고 동헌 온다

인천에는 최근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러 간 선수가 1명 있다. 올해 중원에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던 민경현이다. 이번 달 2일에 입대한 민경현은 18개월간 김천상무 소속으로 복무한다. 민경현은 2027시즌에 인천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시즌 도중 민경현의 이탈은 인천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민경현은 올 시즌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발돋움하며 인천의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었다.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민경현은 측면 수비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옮겼다. 낯선 포지션에서도 민경현은 빠르게 적응했다. 2001년생 민경현은 30대 베테랑 위주의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왕성한 활동량과 간결한 패스 능력, 때로는 강력한 중거리 슈트까지 뽐내며 인천 중원의 새로운 히트카드로 도약했다. 존재감을 키워가던 민경현의 입대는 인천으로서 전력상의 악재다.

하지만 가는 선수가 있으면 오는 선수도 있는 법이다. 민경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반대로 의무를 다하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도 있다. 수문장 김동현의 그 주인공이다. 2023시즌이 끝나고 김천상무로 입대했던 김동현은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이달 17일에 전역한다.

김동현은 빠르면 21일 화성FC와의 홈경기부터 인천 소속으로 뛸 수 있다.

김동현은 김천상무에서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성장했다. 김동현은 올해 3월과 6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는 A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어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김동현의 복귀는 인천에 큰 힘이 된다. 올해 민성준이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인천의 골문을 훌륭히 지켜왔지만, 김동현은 톱 킥이라는 새로운 공격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골키퍼다. 김동현은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킥으로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왔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김동현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롱패스는 제르스, 바로우 등 인천 측면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다. 민성준과는 스타일이 다른 만큼, 두 골키퍼의 장점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에 큰 자산이다.

이들 외에도 이태희, 강윤구, 김연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태희는 병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K4리그의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강윤구는 올해 인천과 코리아컵 3라운드에 맞대결을 펼쳤던 K4리그 소속의 평창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다. 이태희와 강윤구는 올해 하반기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입대한 김연수는 K5리그의 양천TNT에서 선수 생활도 병행하고 있다.



상주나 김천이나, 입대 시점 따라 갇힌 소속명

K리그 선수가 프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무 입대다. 국군체육부대의 스포츠단인 상무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배구, 농구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상무 축구단만이 유일하게 프로 리그의 구성원으로 프로 팀들과 경쟁하고 있다. 현재 K리그에 소속된 김천상무가 바로 그 팀이다.

인천에도 많은 선수가 상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했다. 인천의 최고참 신진호도 상무 출신이다. 신진호는 김천상무 이전 상주상무 시절에 복무했다. 신진호는 2016시즌 도중 입대해서 2017년에 군 복무를 마쳤다. 인천 선수단 중 유일하게 신진호만 상주상무 소속으로 전역했다.

인천에는 상무에 함께 입대했던 동기생이 2명 있다. 김보섭과 이상기다. 김보섭은 인천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마친 뒤, 2020시즌에 군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포항스틸러스 소속이던 이상기도 김보섭과 같은 날에 상주상무에 합류했다. 2020년, 두 선수는 상주상무의 이름으로는 통산 최고 성적인 K리그 4위에 오르는 데 일조했다. 이듬해 상무가 연고지를 상주에서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상무의 구단명이 지금의 김천상무가 되었다. 김보섭과 이상기는 자연스럽게 김천상무 1기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두 선수는 2021년에 김천상무 소속으로 전역증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김동민도 상무에서 복무했다. 김동민은 2020시즌 도중 입대해 2021년 11월에 김천상무 2기로 전역했다. 문지환도 상무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 문지환은 2021년 6월 김천상무에 입대했다. 문지환은 그해 김천상무의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에 공헌했다. 이듬해 하반기에 문지환은 김천상무의 주장도 맡았다.



아산무궁화에서 시작된 주장단의 인연

지금은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지속하면서 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기존 이상의 성적을 내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K리그 소속의 상무에 입대해 선수 생활과 군 복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경찰청 산하의 아산무궁화FC에 입대하는 방법이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2군 리그인 R리그에서만 활동하던 경찰청 축구단은 2013년 K리그 챌린지(현 K리그2) 출범 이후에는 프로화를 통해 K리그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경찰청 축구단은 상무처럼 K리그에서 다른 팀들과 경쟁했다. 경찰청 축구단은 안산 경찰청 축구단(2014~15), 아산무궁화(2016)라는 이름을 거쳐, 2017년부터 해체되는 2019년까지는 아산무궁화라는 이름으로 K리그에 참가했다.

인천에는 아산무궁화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한 선수가 3명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3명 모두 올해 인천의 주장단을 맡고 있다. 주장단 중 가장 어린 민성준을 제외한 세 선수, 주장 이명주, 부주장 김도혁과 이주용이 아산무궁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입대한 선수는 이주용이었다. 이주용은 전북현대 소속이던 2017년, 아산무궁화에 합류했다. 이듬해에는 김도혁과 이명주가 아산무궁화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두 선수는 같은 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명주가 당시 2017 동아시안컵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같은 기수 선수들보다 약 한 달가량 늦게 들어갔다. 그래서 전역도 김도혁이 이명

주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했다. 김도혁은 2019년 8월에, 이명주는 같은 해 9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

김도혁, 이명주, 이주용은 2018년에 아산무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인천의 현 주장단이 활약한 그해 아산무궁화는 K리그2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제도 변화의 여파로 팀은 1부리그 승격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찰청의 체육단 운영 종료 방침에 따라 아산무궁화는 신규 선수를 모집하지 않았고, 프로축구연맹은 해체가 예정된 팀에 승격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승격은 무산됐지만, 세 선수는 K리그2 우승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쌓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K리그2를 제패했던 이들의 경험은 현재 K리그2에서 다시 승격을 노리는 인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K리그2 우승을 맞본 주장단이 팀을 이끄는 지금, 인천은 그 누구보다 승격 레이스의 흐름을 잘 아는 선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민성준, 인천의 유일한 병역특례 선수

언젠가 돌아올 걸 알면서도, 선수들이 병역을 위해 팀을 잠시 떠나는 순간은 늘 아쉽다. 구단은 그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민하고, 팬들은 미래에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인천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골키퍼 민성준이다. 민성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재 민성준은 예술체육요원 신분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며 인천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아시안게임 금메달 혹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내어 국가를 빛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상무나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반적인 복무 형태와 달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복무 기간 2년 10개월 동안 예술, 체육 분야 분업에 종사하면 된다. 민성준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팀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다.

민성준의 병역특례는 선수 개인은 물론, 인천에도 매우 큰 이점이 되었다. 인천의 주전 골키퍼였던 김동현이 김천상무 입대로 팀을 떠나 있었다. 이태희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로 전역에서 이탈했다. 두 선수의 공백 속에서 민성준은 올해 주전 골키퍼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민성준은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인천의 수비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었다. 병역 문제로 골키퍼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민성준의 존재는 인천에 큰 행운이자 버팀목이다.



골키퍼 명가 인천의 새로운 수문장 이상현, 데뷔전 경험으로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겼다

글 = 이환희 UTD기자(hwanhee515@naver.com)



지난 코리아컵 16강 울산 HD와의 원정경기, 올해 입단한 2006년생 골키퍼 이상현이 갑작스러운 출전 기회를 얻었다. 3골을 실점했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이태희, 김동현, 민성준 등 훌륭한 골키퍼들을 배출한 골키퍼 명가 인천에 등장한 새 얼굴이다. “데뷔전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는 유망주 이상현의 이야기를 UTD기자인이 들어봤다.



경쟁 어려워도 인천 선택한 이유, 수준 높은 선수들과 함께 하기 위해

Q. 입단한 지 6개월이 됐다. 인천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같이 필드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배울 게 정말 많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축구선수로서 똘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Q. 인천은 훌륭한 골키퍼들이 많은 팀인데, 입단하기에 부담되지는 않았나?
부담이 됐지만, 사실 골키퍼는 다들 아시다시피 첫 시즌부터 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더 좋은 선배들에게 배우다는 마음으로 인천을 선택했다. J리그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국내 여러 구단이 불렀지만 선수 퀄리티가 높은 인천에서 운동하고 싶었다.

Q. 포지션의 특징이기도 하고, 팀에 좋은 골키퍼들이 많아서 출전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시즌을 보낼 생각인지 궁금하다.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준비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뷔전에 갑자기 나서게 되면서 이번엔 그걸 더 느꼈다.

Q. 아직 이상현을 잘 모를 팬들에게 선수로서 자신의 장점을 설명해달라.
내 장점은 빌드업이 된다는 것이다. 선방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성장할 것이다.

Q. 입단 때부터 이태희 선수를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알고 있나?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간혹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도 좀 닮았다고 생각한다. 동계 훈련 때 나를 보고 (김)동민이 형이 “태희 형 닮았다, 정민기 선수 닮았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스스로 황희찬 선수를 더 닮았다고 생각한다.



경쟁 어려워도 인천 선택한 이유, 수준 높은 선수들과 함께 하기 위해



Q. 프로데뷔전 경기 소감은?
정말 많이 배운 날이다.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끝나니까 후회도 됐다. (어떤 후회가 있었는지?) 두 번째 실점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있다가 헤딩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조금은 뒤에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Q. 데뷔전에 나서기 전 목표가 있었는지?
그날은 잘하려고 애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긴장됐다. 앞으로 경기 목표를 생각하기 전에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울산HD는 K리그 3연패를 이룬 강팀이라서 더 긴장했을 것 같다.
갑자기 나가게 된 경기라 상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몸 풀 때도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했다. 강팀을 상대하면 슈팅이 많이 올 테니까 오히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킥오프 20초 만에 큰 실수를 할 뻔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골킥이 되고 나서 ‘천만다행이다, 이거 들어갔으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인천에서 경기 못 나가게 될 뻔했다고까지 생각했다. 정말 다행이다.

Q. 선발 출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나?
경기 당일 미팅을 하는데 선발 라인업에 내 사진이 딱 걸려 있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아니다. 솔직히 걱정이 조금 더 컸다. 권찬수 골키퍼 코치님께서 “상현이 너를 경기에 내보내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다. 경기 끝나고는 코치님께서 “진짜 큰 경험했고, 또 기회 오면 더 잘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승부차기 키커 출신, 빌드업 할 줄 아는 골키퍼 이상현

Q. 지난해 고3 시절, 무학기 대회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섰다. 킥이 좋아서 그랬던 건가?
넣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 되면 좋지 않나. 감독님이 시키신 건 아닌데, 아무도 안 찬다고 해서 그냥 내가 차겠다고 했다.

Q. 중고등학생 때부터 골키퍼의 빌드업 참여 전술을 쓰는 감독님들을 만났나?
그랬다. 필드에 들어가서 훈련한 적도 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어 봐야 패스를 받는 선수의 입장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연습 경기 때 몇 번 필드를 경험했고, 주로 공격수로 뛰었다.

Q. 윤정환 감독도 골키퍼의 빌드업 가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을 잡으면 일단 진정하고 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실수

해도 괜찮으니까 멀리 차지 말고 최대한 우리 전술에 맞게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자고 하신다. 동계 훈련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전이 전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학생 때부터 공을 잘 차는 골키퍼였으니까 전술 적응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맞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골키퍼도 빌드업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서 부담이나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형들 세대에는 골키퍼는 공이 오면 걷어내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고 계신다.

Q. 윤정환 감독의 적극적인 젊은 선수 기용이 자극이 되는지?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다. 나만 잘하면 경기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나 경력보다는 실력만 보고 쓰신다. “고교팀에선 최고참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씀해주셨다.



내 뒤엔 팬들이 있다

Q. 처음으로 피치 위에서 인천팬들의 응원을 받은 소감은?
워밍업 때 인사하고 나서 조감하는데, 어떤 팬분이 “상현아 오늘 한번 사고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꽃혀서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살짝 긴장이 풀렸고, 내 뒤에 팬들이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안산 원정에 갔을 때 “울산에서 잘했다”고 말씀해주신 것도 들었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갑작스럽게 데뷔했는데, 아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오면 그때는 데뷔전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기장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고, SNS 메시지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승격해서 다 같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파검빛 꿈을
후원하는 사람들, **서쪽사람들**

커다란 날개를 펴고, 희망에 더 가까이

2025년 2월 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의 후원회 [서쪽사람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인천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후원회는 팬들의 응원을 모아 강등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말, 인천유나이티드의 강등이 확정되고 모두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서쪽사람들]은 시작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회를 만들어 인천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자 한 것이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준비위원 모두가 각자의 생업을 지닌 생활인으로서 시간도 재정도 여유롭지 않음은 물론 팀은 강등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어 후원회의 추진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인천팬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팬들은 후원회의 탄생을 한마음으로 응원하였고, 그 결과 서쪽사람들의 창립총회가 순조로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서쪽사람들은 팀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팬들의 염원을 모아, 인천유나이티드의 1부 복귀와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후원회원을 모으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와 홍보물품의 개발, 각종 매체를 통한 후원업체 홍보활동 등이 그것이다.

후원회는 팬들의 땀방울이 모인 후원금이 인천유나이티드의 발전에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후원회가 되고자 한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서 거듭남은 물론 더 강력한 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후원회의 홈페이지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며, 현재는 카카오톡 채널(@서쪽사람들) 및 인스타그램(@incheonutd_west)을 통해 후원회 가입이 가능하다. 후원금액에 따라 블루(월 1만원), 블랙(월 10만원), 골드(월 100만원)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각각의 등급에 따른 혜택 또한 준비되어 있다. 후원회는 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더 다양한 후원방법과 채널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게 내딛는 첫 걸음



▲ 지난 2월 8일, 인천UTD 후원회 '서쪽사람들' 창립 총회
(사진/디자인 제공: 서쪽사람들 미디어팀 / 박은서, 소원 / 디자인팀: 나경민, 김태원)

창립을 맞은 [서쪽사람들] 설립준비위원회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윤준구(후원회장) : 서쪽사람들의 창립은 인천유나이티드와 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원회는 지역사회와 인천팬 그리고 팀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인천유나이티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범 : 20여년전 내고향 인천에 "인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축구단이 생겼다는 일은 너무나도 생경한 일이고 20여년의 시간동안 2번의 준우승 그리고 "생존왕"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참가, 그리고 "강등"이라는 참담한 결과까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문 : 인천유나이티드 창단전에는 팀이 없어 서글픈 마음에 창단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팀에 어찌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후원회를 만들어보자 하여 이렇게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인천을 창단하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손길들이 모여 구단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과정이 힘들고 험난했으나 인천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서쪽사람들"이라는 후원회로 인하여 우리팀이 더욱 발전하여 아시아의 NO.1 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 서쪽사람들은 인천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천유나이티드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전환점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명 한명의 팬들의 힘을 모아 구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강등의 시련 앞에 슬퍼하기보다 사랑하는 팀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의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우리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고 더 많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힘이 모여 더 강한 인천유나이티드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재용 : 내 고향팀 인천이 2부리그로 강등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후원회의 창립으로 인천이 1부리그로 복귀하는데 팬으로서 힘을 보탬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감개무량 합니다. 후원회가 더욱 성장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 힘을 모아 1부리그 승격과 이젠, 우승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의

TALK 카카오톡 채널(@서쪽사람들)

인스타그램(@incheonutd_wes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